

# 광주시, 제3순환 고속도로 등 도로망 구축 박차

### 정부 제2차 계획 금천~화순 18.6km 1조 500억 신규 반영 광주 남부지역 접근성 제고·원활한 수송 지원 기대

광주시가 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3순환 고속도로 등 도심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2025년까지 중장기 투자 방침을 담은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제3순환 고속도로 구간이 새로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반영 구간은 제3순환 고속도로 4구간 일부인 전남 나주 금천~화순 18.6km이다. 예상 건설 비용은 1조5000억원으로 전액 국비 사업이다.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 절차를 거쳐게 된다. 제3순환 고

속도로 가운데 금천~광주 분량(제1 구간) 15.5km, 장성~담양(제2 구간) 25.3km 구간은 이미 건설됐다.

분양~장성(제2 구간) 9.7km는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사방으로 퍼지는 방사형 순환 간선 도로망의 남은 구간인 담양 대덕~화순 30.8km도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력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올해 광역도로 1건, 혼잡도로 5건, 산단진입도로 3건 등 9건의 간선도로 사업도 진행한다.

시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국비 등을 모두 확보했으며, '광주하남~장성삼계간' 광역도로 사업은 전남도와 함께 각 구간에 대한 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에 이어 착공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또 올해 설계비 전액과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는 혼잡도로 개선사업에도 집중한다. 상무지구~침단산단간, 월전동~무진로간, 북부순환도로(1공구), 용두~담양간 등 계속사업 4건, 각 화동 도동고개~제2순환도로 구간 신규 사업 1건 등이다.

'상무지구~침단산단간' 도로는 2025년 하반기 개통예정이며, 상무지구 시청사 뒷편과 침단 보존병원간 4.98km를 잇는 4~6차선 도로가 신설된다. 또 다른 혼잡구간인 '월전동~무진로간' 사업

은 상무교차로 확장과 공항 앞 동송정지하차도 구조물 설치 공사가 진행중이며, 이르면 올 연말부터 상무교차로에서 상무로 구간이 우선 개통된다.

'북부순환도로' 사업은 올해 1공구 일곡교차로~한새봉~용두동 빛고을대로까지 3.22km 구간 보안 설계를 모두 마무리하고 하반기 착공한다.

광주시는 또 신규사업인 각화동 도동로~제2순환도로간 혼잡구간 개선사업은 올해 설계용역에 이어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재식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광주순환 간선 도로망을 신속히 구축해 시민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원활한 물동량 수송 지원 등 지역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지역 혁신프로젝트' 공모 선정 전남도, 일자리 창출 동력 확보

전남도가 고용노동부의 '2022년 지역혁신프로젝트' 일자리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다인 국비 34억원을 확보,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를 위한 동력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고용부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10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34억원을 확보했으며, 도비 11억원을 보태 총사업비 4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목표는 18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다. 주요 사업은 ▲충출발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걸맞은 미래형 인재 양성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에 대응한 조산업 특화 일자리 발굴 등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어려움에서도 지역혁신프로젝트 일자리사업에 34억원을 들여, 1464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계층별·지역별·산업별 특화 일자리사업을 추진한 결과, 고용률은 전국 2위인 64.6%, 실업률은 전국 3위인 2.3%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 평가 우수 지자체로 7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도 거뒀다.

이밖에 사·군 여건에 맞는 자율적 일자리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소규모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을 자체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일 1차로 14개 사업에 47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4일까지 2차 지원 대상을 접수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새마을금고·신협 등 지역 소상공인 돕기 나섰다

광주시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광주시는 3일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 지역 동구·화순군협의회, 서구협의회, 남구·광산구협의회, 북구협의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협의회, 북부평의회, 서부평의회, 광주신용보증재단 등 8개 기관과 소상공인 특별용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비롯한 시와 금융기관간 상호 협의를 통한 적정 규모 자금 출원 및 600억원 내외의 자금공급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3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등 8개 기관과 광주지역 소상공인 특별용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전남도, 고흥 득량만권에 명품 해안도로 조성

### 고흥~장흥 간 지방도 승격 신흥~용동 지방도 확포장 추진

고흥 득량만권에도 명품 해안도로가 탄생한다. 전남도는 고흥·득량도·장흥 연결구간을 지방도 노선으로 신규 지정하고, 신흥~용동 간, 안남~송림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고흥군과 장흥군 소재지 간 거리는 82km로 자동차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해상교량을 통해 연장을 약 40km로 단축해 소요시간도 30분으로 크게 줄어든다. 당초 전남도는 지난해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 수립 당시 고흥 도양을 용정리~장흥 안양면 수문리 22.0km 구간의 국도 승격을 강력하게 건의했으나 미반영되자 차선책으로 이를 지방도 845호선으로 신규 지정했다.

매년 142억원의 물류비용 절감과 득량만권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남도는 또 고흥 도양과 두원을 연결하는 해안관광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도양을 장계리에서 도덕면 용동리까지 8.2km를 연결하는 '신흥~용동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발주했다. 오는 5월 착공해 491억원을 들여 추진한다.

고흥 대서면 안남~송림 간 지방도 3.5km 구간은 선보상 시행 후 보상 진척에 따라 확포장공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렇게 득량만권 도로망을 완료하면, 해안도로를 활용한 관광객이 늘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민의 편의 보장과 득량만의 무한한 자원을 개발하도록 득량만권 해안도로 기반시설을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건설로 도민에게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백신·바이오 공정 개발인력 양성 박차

### 화순백신특구 인프라 활용 매년 530명 국내 기업 투입

전남도가 전국 유일의 백신특구인 화순백신산업특구에서 백신·바이오의약품 관련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을 받은 생산·품질관리시설을 활용해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국가 백신안전기술센터 등 화순백신산업특구의 우수한 원스톱 인프라를 활용, 해마다 백신·바이오 전문인력 530여 명을 양성한다.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운 도내의 백신·바이오 기업에 투입하는 백신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전망이다. 오는 9월 준공하는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총사업비 690억원을 들여 백신 연구개발·건설일부터, 임상, 승인까지 백신 전주기 기술 등을 지원하

는 국가 백신전략의 핵심 인프라다.

센터는 세포 관리, 마스터 셀 बैं크 등 품질관리부터 GMP 모의 평가, 바이오 의약품 인허가 과정 등을 수행하는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매년 300명씩 양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화순백신산업특구에 위치한 '국가 미생물실증지원센터'와 연계해 매년 200명의 글로벌 백신 공정 전문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백신 특화 공정인력 양성사업(2023~2025년까지 240억원 투자)'을 2023년 국고사업으로 건의 중이다.

지난해 1월 준공한 '국가 미생물실증지원센터'는 국제 규모의 미생물 기반 임상용 백신 위탁생산 시설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사업비 430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 m-RNA 백신 연구·생산시설인 'm-RNA백신 실증지원 시설'을 구축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 고흥 육용오리농장서 H5형 AI 항원 검출

전남도가 3일 고흥 남양면 육용오리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신속한 대응방역에 나섰다.

이번 H5형 검출은 고병원성 AI 특별감화조치로 육용오리 사육단계 검사과정에서 이뤄졌다.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에 나올 예정이다.

전남도는 H5형 AI 항원 검출 즉시 조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농장 육용오리 1만80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도 현장지원관을 현장에 긴급히 파견해 역학조사와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도내 모든 가금농장에 SNS로 상황을 즉시 전파해 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검출농장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정해 이동통제, 집중 소독을 하고, 역학 관련 농장과 시설은 이동제한에 들어갔다. 해당 농장은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잔존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가용한 소독장비를 총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특히 발생 농장과 동일 계열의 농장·차량은 4일 오전 9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시키고 철저히 소독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MODERN**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특허청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매주 금,토,일 광주출발 셔틀버스 운행

당일투어 1인 139,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199,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062-385-0515  
아이티여행사:062-382-8866